겨울방학 예절학당 박인수 훈장이 4일 오전 광주시 서구 세하동 향토문화마을 예절학당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사자소학(四字小學)을 가르치고 있다. 초등학생 37명은 3박4일 동안 전통예절·서예·사자소학·사군자 등을 배우게 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KTX 카풀 하실분…"

마주보는 동반석 37.5% 저렴
인터넷카페 게시판 구인 넘쳐

싼값에 KTX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KTX 카풀'을 이용하는 '알뜰족'이 늘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열차를 함께 탈 동반자를 구하는 글로 넘쳐나고 있다.

'KTX 카풀'은 KTX의 객차 중앙의 서로 마주보는 동반석 4자리를 한 묶음으로 구입, 함께 타고 가는 것을 말한다. 동반석은 열차마다 일반실 한 칸에 두 묶음, 총 8자리가 마련돼 있다.

'KTX 카풀'의 가장 큰 장점은 '요금이 매우 싸다는 것'. 일반석 요금 3만6천100원(순방향 기준)에 비해 37.5% 저렴한 2만2천600원이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다. 1인 당 1만3천500원씩 덜 내는 셈이다. 광주~서울 간 새마을 열차요금(3만2천원)에 비해 9천400원, 우등고속버스(2만2천400원)에 비해 200원 더 싸다.

KTX를 이용해 매주 광주와 서울을 오가는 승객이 'KTX 카풀'로 갈아타면 월 10만8천300원, 연 129만9천600원을 아낄 수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net)에 마련된 카페 'KTX카풀'(cafe.daum.net/ktxcarpool)의 경우 새해들어 하루 방문객 수만 4천 명이 넘는다. 지금까지 8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가입했으며, 하루에도 80여 건의 글이 새로 올라오고 있다.

회사원 최모(55·광주시 남구 방림동)씨는 "지난 연말엔 KTX 카풀로 다른 가족과 함께 동반석을 신청했더니 평소보다 돈이 남아 그 돈으로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反FTA' 시위 주동자 가압류

법원, 광주시 신청 수용…기아차 노조원 등 6명 2억원 상당

민노총·전농 "편파 판결" 반발

FTA 반대 시위 관련자들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낸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향후 시위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4단독 서정암 판사는 4일 광주시가 지난해 11월 22일 '반(反)FTA'시위 과정에서 시청사 파손을 주도한 기아자동차 노조 조합원 김모(30)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 판사는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의 소명이 충분해 가압류 신청 대상자 6명에 대해 2억원 상당 부동산을 가압류 하기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가압류 수용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은 김씨를 비롯한 이들의 건물과 토지 등이고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내지 않는 한 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14일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냈으나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고 나흘 후인 22일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과 공권력과 지자체가 합작해 투쟁을 억누르려는 술수"라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이번 결정은 투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배삼태 상임대표도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편만 든 편파적인 판결이다"면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1일 '시 청사 파손' 등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13개 단체와 시위 가담자 42명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번엔 고철·폐타이어 시청 앞 2차 야적 시위

'反 FTA' 광주·전남본부 6일부터

'한미 FTA중단 광주·전남운동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하 농민회) 등이 FTA반대 등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앞에서 2차 야적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이를 원천봉쇄할 예정인 경찰과 충돌이 우려된다.

4일 '한미 FTA저지 범국민 광주·전남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6일 오후 2시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한미 FTA 중단과 손해배상 철회 광주시청 앞 현물납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오는 15~19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FTA 6차 협상을 앞두고 14일까지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되는 FTA반대 집회 가운데 하나로 열린다.

특히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와 남총련 등은 지난해 12월 15일 농민회의 광주 시청사 앞 기습 야적 시위에 이어 이날 집회에서도 고철과 폐타이어·가전제품·옷·빈병·헌책 등 재활용품을 시청사 앞 광장에 쌓아놓을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최근 사업장별 단위노조 등에 각각 차량 1~2대 분량의 고철과 폐타이어 등을 모아 수거한 뒤 집회에 참여토록 했으며, 농민회 등도 이번 야적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광주시가 시위로 인한 청사 시설물 피해와 관련해 농민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가 법원에 의해 결정되고, 손해배상 소송도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농민회는 쌀로, 민노총은 고철로 현물 납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FTA반대 운동본부와 농민회가 지난 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접수한 집회 신고에 대해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단체가 불법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데다 1차 야적시위 때처럼 기습적으로 집단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판단하고 집회를 불허할 방침"이라며 "집회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 앞 야적행위는 물론 도로 점거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고 야적시위 봉쇄방침을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석·박사 논문 대필·허위심사 지시

전남대 부학장 구속

허위취득자 등 5명 입건

전남대 여수캠퍼스 부학장이 학생들에게 석·박사 학위를 불법으로 받도록 해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4일 논문을 대필하거나 표절하고 논문 심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학생들에게 석·박사 학위를 취득시켜 준 전남대 여수캠퍼스 부학장 한모(44)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허위로 학위를 취득한 박모(여·41·6급 공무원)씨와 논문을 대필해 준 이모(여·34·이학박사)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3월께 인천의 한 수산연구소 대학원에 다니는 박씨가 논문 연구시간이 부족하자 시간 강사 이모씨에게 박사 논문 대필을 지시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자신이 배출한 7명의 박사 학위 논문을 연구실 컴퓨터에 저장하도록 한 후, 박사과정의 제자들에게 학위 논문 작성시 이를 그대로 표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논문 대필과 허위 논문 심사에는 조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여수대(현 전남대 여수캠퍼스)와 전남대 간의 통합으로 2006년 이전 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순천 양식장 10곳서 전어 250t 집단폐사

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순천시 별량면 축제식 전어 양식장 10곳에서 키우던 전어가 폐사하기 시작해 강추위가 몰아친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 사이 입식된 전어 250t이 집단 폐사했다.

양식 전어가 이처럼 집단 폐사한 것은 지난해 가을 전어 수요가 급감한데다 양식업자들이 마구잡이로 전어 양식에 뛰어드는 바람에 양식 면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판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건설사 '알박기' 40대 고소

광주 서부경찰은 4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인 P건설사가 신축예정지에서 소위 '알박기'로 인해 9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강모(여·48)씨를 고소해 옴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초등학교 27곳 돌며 5천여만원 훔쳐 '쌍나팔'

○…체육·점심시간 비어있는 교실·교무실 등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30대 남자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구속.

○…4일 보성경찰에 따르면, 김모(38)씨는 지난해 11월23일 정오께 보성군 보성읍 N초등학교 교실 14곳에서 현금 34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광주·전남 학교 27곳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현금 5천여만원을 훔쳤다는 것.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훔쳤다"고 진술. /보성=안구일기자 giahn@